

뉴스 인물 진종원 기지4리 이장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 개설 요구 동분서주

861세대 3천500여명 출퇴근길 교통사고 위험신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3천500여명의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천시 신북면 가재2리, 기지4리에 세워진 거산 아파트, 포미재 아파트, 산호아파트 861세대에 3천5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43번 국도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1천 여대의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에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입로 입구 K마트 마당에서 차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가재리 쪽에서 포천시 내나 일동방향으로 나가는 차량 신호와 43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3개 아파트 건설회사는 모두 부도처리돼 시공회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자 1년 전부터 기지4리 진종원(65·사진) 이장이 진입로 개설과 신호등 설치를 위해 포천시, 국도유지사



무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 이장은 앞서 제기한 문제 이외에도 매 시간마다 시내버스가 산호아파트 단지까지 운행되며 한국전력 포천변전소가 있어 대형차량이 수시로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 43호선에 위치한 아파트 진입로의 교차로가 잘못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출퇴근시 상습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진 이장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협소한 진입로를 감수하여 왔으나 도저히 진입

로(교차로)를 새로이 개설하지 않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동안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포천시, 포천경찰서 등에 주민숙원인 교차로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건의 한 바 있다.

진 이장은 이처럼 다양한 노력 끝에 드디어 포천시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호등 설치에 관해 용역을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에도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기도 했으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이장은 또 신북면 가재2리·기지4리 진입로 개설을 위한 단원서를 신북면 각 이장들로부터 받아 놓고 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각 계각층에 탄원서를 내기 위해서다.

진 이장은 "다행히 포천시와 포천경찰서에서 861세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박혜자 주부영양가이드 포천시영양사

산정호수 몽베르CC 손권용 대표이사께서 직접 쌀20kg×15포를 해뜨는 집 입주식에 가지고 오시었다. 화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으로 대신했고 매일 100만원씩 신축기금으로 1년 동안 기탁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 100만원씩 기탁하기로 약속하셨다.

해뜨는 집 입장에서 오랜 가뭄 끝에 단비다. 창시자 박진수 원장은 심한 장애우 이시고 현재 식구는 16명. 앞으로는 30명까지 종종 장애우들이 편히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지 1000여평에 건평 210평을 마련했는데 주방집사님 1분과 이동면에서 8년째 하루도 빠짐 없이 봉사하시는 조정자 권사님은 살아 있는 천사다.

이곳 저곳 곳은 일은 도맡아 하시고, 워낙 어려워서 안 올 수가 없고 정미숙(전 생수의 집 원장) 집사님이 혼자 너무 애쓰셔서 안타깝다고 한다.

몽베르CC는 이곳 말고도 소년소녀 가장 돕기(면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생활 속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단체 선별하기는 힘들어도 비 생계 노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수는 없다. 더 귀한 사랑도 없다. 있는 지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의 꽃, 하늘 꽃이 피어있만 가능하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작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햇살입니다. 사랑의 등불이 되어 주실 분 함께 하실 분 환영합니다. 나는 살수로 꿈 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몽베르 손권용 사장님과 함께 하시길...



추천! 한마당 어느 무인도에서 생긴 일



이보용 본지사문위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기자는 겨우 통나무를 잡고 무인도까지 도착해 살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무인도에 도착한 했으나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오고 여새똥을 똥아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은 집이 완성이 되어 바람과 추위를 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단을 다 이용하여 불을 만들었습니다. 차를 딱딱 치면서 불을 만듭니다. 한 참 만에 불뿔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먹고 삶에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만 불뿔이 집으

로 옮겨 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똥 흘려 만들어 놓은 집은 순식간에 다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는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 보겠다고 이렇게 힘겨워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겹게 집을 지었는데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합니다."

기자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용" 하는 배고픈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는 별책 일어난서 쳐다보니 수평선 위에 웬 짐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높여서 기자가 있는 무인도를 향하여 손발같이 달려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기자를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무인도에서 난데없이 연기가 보이길래 급히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이 타는 연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전하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힘쓰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뀝니다.

(문의 011-342-5834)

*용경자의 세상읽기 8

내 이웃이 있어 행복하다

한해의 절반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내버리고 이내 팔월이 가 쥐지 못한 손안에는 6월의 녹음만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아작은 절반이 남아있다는 위안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 6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환경사랑 글짓기에서 일반부 은상을 받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나 6월5일 시상식에 참여해 트로피를 받고 보니 뿌듯한 감회가 한껏 풀려왔다.

학창시절 이후로 25년 만에 상이랑 것을 받아보니 한껏 들뜨는 것이 우쭐한 기분까지 들었다. 그런 내 기분을 아는 듯 그녀의 이웃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모두 모여 축하의 술잔을 들었다.

"내가 아는 네가 상을 탄 것

이 자랑스럽다"면서 축하의 소주잔을 연신 부딪쳤다. 덕분에 2차 노래방까지 갔다가 목이 쉬기까지 했다. 다음날 점심 때 다시 만나 해장국을 먹으며 전날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년 동안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지만 이웃으로 같이 살아온 깊은 정은 가족만큼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 어떤 실수나 허물도 모두 다 덮어줄 수 있는 내 이웃이 있기에 행복하다고 난 자랑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축하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아름답고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 아닐런지.



자유기고

장애아동과 자연의 또 다른 인연



조미희 산정호수 문화재단 사회운영팀

한화그룹의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으로 노아의 집과 결연을 맺은 지 2년째, 한화봉사단은 3년간 노아의 집 시설장애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사회적응력과 문화체험, 자연체험 등을 지원하게 된다.

6월의 한화와 함께 하는 희망 나누리 프로그램은 '갯벌체험 여행'이다. 지난 6월6일~7일 1박2일로 '대천으로 떠나는 갯벌체험 여행'을 다녀왔다.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과 '자연'을 만나 갯벌에서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장애아동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는 시간이었다. 갯벌체험은 말

그대로 갯벌에 들어가 한바탕 놀이를 벌이는 것! 장애아동들은 낚생처음 갯벌을 마주했을 때 갯벌에 들어가기 두려웠지만 이내 천진난만한 반색을 드러냈다. 갯벌에 들어가 장난치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가 따로 없었다.

진흙탕 속에 들어가 뽕구는 사이 장애아동들의 달린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으며 서로 뽕굴며 장난을 치는 모습에는 '장애'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낚생처음 갯벌체험을 경험한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즐거워 보였다.

갯벌체험 후 대천화리조트로 향하여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또한 장애아동들은 바다에 와 본 것도 처음이라 한다. 잔잔히 치는 파도 속으로 저마다 강충강충 뛰어드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시인의 窓

길

문춘식(시인, 그리고문학회 회장(경기 연천))

길이 많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길은 직선을 뚫어가고 등허리가 흰 달만 이정표처럼 하늘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짐승처럼 목숨을 데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헤매다가는 울무에 걸려 박제가 되기 십상이다. 내가 갈 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 길이 아득하다는 것뿐이다.

<감상노트>

누구나 사람은 길을 간다. 그리고 길을 내며 살아간다. 땀을 찾아가는 길이 있는가하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 새로 난 길은 낡았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어떤 세월이 떨어진다. 혼자 가는 길이 있는가하면 둘이서 가는 길이 있고 여럿이 가는 길이 있다. 인간이 땅에다 길을 낼 때는 하늘을 경외해야 한다. 바로 천지신(天地神) 삼위일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태양은 길을 열고 낮 달은 길을

물고 비로소 밤에는 하얀 옷을 벗는다. 생각한다,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 어떤 길이 오늘날은 간절하다.

길은 차별하는 법이 없다. 누구나 다 조건 없이 가까이 받아들인다. 다만 인간들이 길에다 금을 그어 투쟁 할 따름이다. 그렇다. 인간은 끝내 세상 길을 고스란히 부여놓고 다시 바람의 길로 접어든다. 길은 인간의 굴뚝이다. 안 익 수(시인)

2007 포천 YMCA배 야구리그.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 포천 People of fortune. 주최: 포천 YMCA, 주관: 포천시 야구협회, 장소: 영북중학교, 후원: 미즈노제일스포츠(02-2272-0540) 한솔광고(주) 비전아트21

"야구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포천 나이스야구단, 포천 만다린덕스야구단, 포천 YMCA야구단, 동두천 이담야구단, 동두천 천함야구단, 철원 철루미야구단, 가평 야사야구단, 남양주 돌핀스야구단



포천시야구협회

경기도 포천시 신음동 143-4 유한APT 상가 104동 102호 Tel. 535-0867 Fax. 536-0868 H.P. 011-242-0869 E-mail : csh9110002@naver.com

- 포천 YMCA 창립준비위원장 송영섭, 포천 YMCA 리틀야구단 단장 장승호, 고문 장명재, 부단장 선우담, 감독 이석현, 코치 배병두 황원규 고지우, 선수 안희택 강현세 이경렬 성기범 황성우 장풍도, 이지운 박유민 이윤기 김승현 양태호 안유택